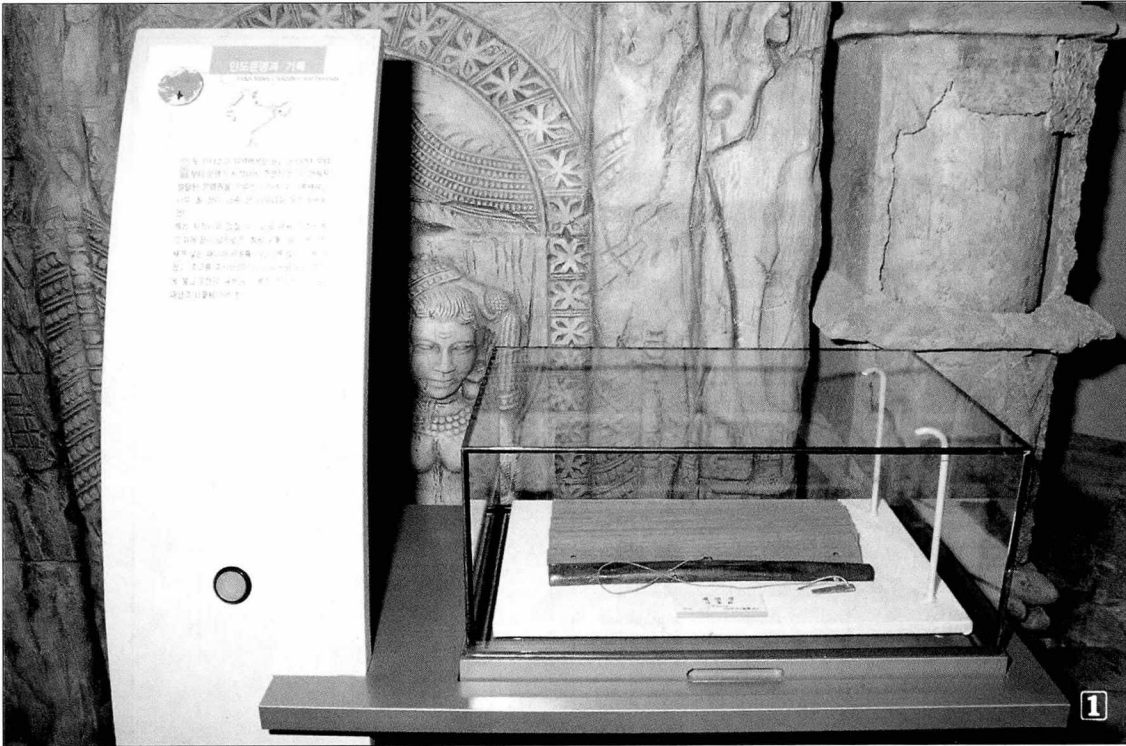


종이의 탄생과 약속, 그리고 미래

10월 21일 개관한 전주 '한솔 종이박물관'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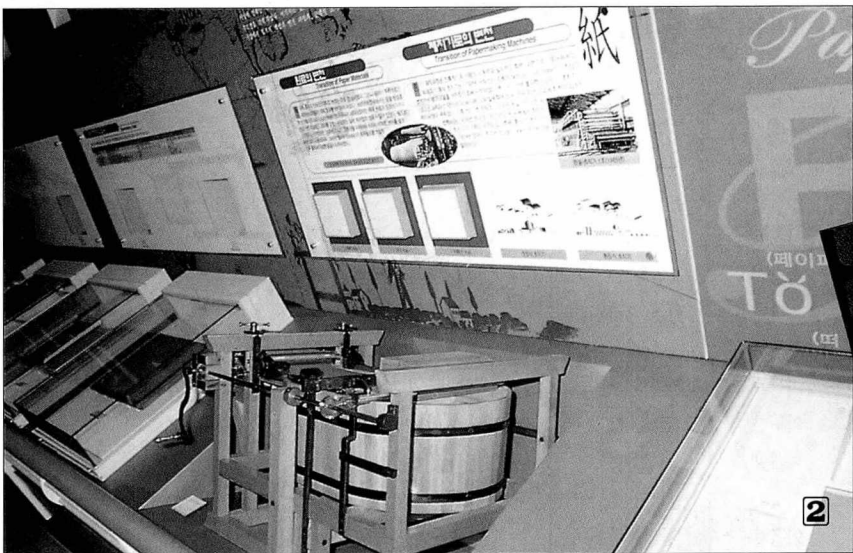


인류의 지식정보를 저장해온 종이의 어제와 오늘, 내일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한솔 종이박물관(관장대행 구형우)이 한지의 고향 전주에서 문을 열었다. 한솔그룹이 60억원을 투자해 만든 5백여평의 전시공간은 크게 종이의 어제와 오늘, 내일로 나뉜다. 각 전시공간은 다시 혼돈·탄생·대화·동행·약속·희망·추억·출항의 문학적 이름을 따라 9구획으로 이뤄진다.

종이 탄생 이전의 파피루스 같은 기록수단의 역사를 천정의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고, 종이가 탄생하면서부터 온갖 종이 제작기계를 꼼꼼한 설명과 함께 들려준다. 인류의 생활 곳곳에 쓰였던 종이의 흔적은, 특히 우리나라 지공예품 유물전시에서 종이쓰임을 생활로 넓혔던 선조들의 뛰어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종이에 관한 지식을 퀴즈형식으로 풀어보는 컴퓨터 게임이나 종이접기 프로그램, 공예품을 직접 만져보면서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유물검색 시스템, 종이 주인공 '티기'의 꿈과 모험을 환상적인 영상으로 보여주는 영화감상실 등은 이 박물관에서도 돋보이는 볼거리다.

최첨단 시스템을 섬세하게 이용한 현대적인 시설들도 놀랍지만, '종이'라는 단순한 주제가 이토록 풍요롭게 가치를 뽐내고 있음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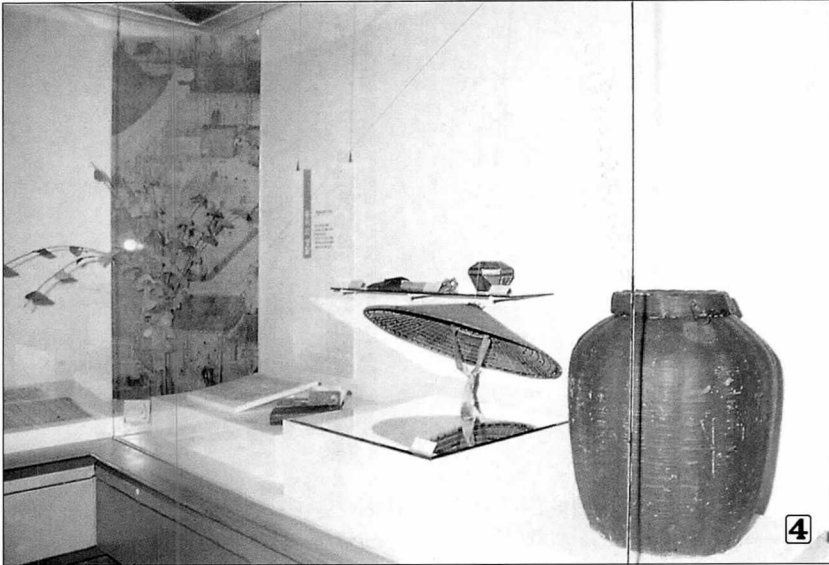
2



개관시간은 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방학기간에는 일요일에도 문을 연다. (문의 0652-210-8000)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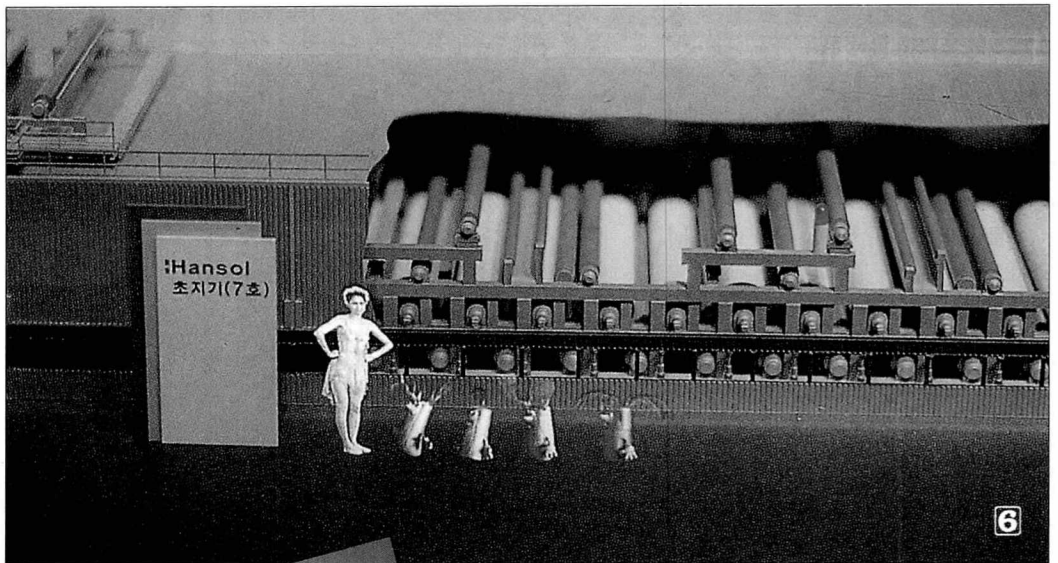


5

1 인류가 종이를 만들기까지 문명은 아직 '혼돈'이었다. 인도에선 자작나무 껍질을 건조시켜 양면을 문질러 만든 '파라다'에 불교경전의 내용을 기록에 남겼다. 15세기까지 주요 기록재료로 사용된 인도의 패다라문명 설명판의 부저를 누르면 둥근 조각기둥이 스르르 돌면서 패엽경을 제작하는 디오라마가 펼쳐지고 관련내용의 설명이 들린다. 이 전시관에는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이집트 파피루스, 지중해 양피지, 중국 갑골문과 죽간의 기록재료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꾸몄다.

2 채륜이 종이제작을 실용화시킨 이후 세계 각국의 종이제작과 전파경로와 역사를 보여준다. 종이원료는 주로 현마, 아마, 면섬유를 수집해 사용했으며 펄프의 근대화는 1800년대에 시작됐다. 사진의 가운데 '로베르 초지기'는 1798년 프랑스인 로베르가 발명한 최초의 기계식 초지기다.

3 종이호랑이 '티기'가 겪는 이야기를 통해 종이의 의미를 생각해 하는 9분 짜리 영상 <지혜의 공책 The Dream of Paper Tiger>의 한 장면. 등장 캐릭터들은 모두 종이로 제작돼 독특하고, 전통음악의 선율은 오히려 현대적이다.



6

4 종이의 탄생은 곧 문명의 발달을 뜻한다. 정보의 기록뿐 아니라 여러가지 생활용품으로, 예술품으로, 또는 오락물로 인간의 삶을 풍부히 했다. 사진은 종이로 어사화·갓·채독·등·미투리·요강 등을 만들었던 선조들의 종이공예품들.

5 탈이나 짚신 갓 등의 공예품을 관람자가 직접 센서에 갖다대면 자동으로 옆에 있는 컴퓨터에서 동영상 해설이 나오는 유물검색 시스템.

6 종이의 원료인 나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종이로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홀로그램. 자칫 딱딱하기 쉬운 종이제작과정이 홀로그램 캐릭터들의 등장으로 어린이들도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다.

7 '닥' 나무를 주원료로 한 전통 한지의 뛰어난 것은 오늘날에도 증명된다. 전통 한지는 닥무지(수피를 벗기는 일)와 닥살기, 티고르기, 두드리기, 원료넣기, 종이뜨기, 물빼기, 말리기, 다듬이질과 물들이기 등의 복잡한 공정을 거친다. 과정마다 만드는 이의 정성이 배지 않을 수 없다. 한지 재현관에서는 관람자가 전통한지 만드는 과정을 직접 해 볼 수 있다.



7